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sky train(=지하철)역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가까이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다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고 메트로 타운, 스탠리 파크 등 쇼핑센터나 관광지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학교 내에 팀 홀튼,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이 있으며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 수업은 아침 9시 ~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랑가라 대학에서 제공해 준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시간 및 그 외의 모든 활동을 할 때 영어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 첫 주에는 English Essentials, 두 번째 주에는 Cultural Studies, 셋째 주에는 Global Citizenship와 관련하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idiom을 알려 주셨고 문법, 캐나다의 문화, 여러 나라의 문화와 글쓰기 등에 대해서 배웠으며 주로 그룹이나 파트너와의 의견 공유, 주장 등 대화를 통한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과제는 많이 없었고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정도로만 내주셨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 Granville Island : 조를 나누어서 인터뷰 및 몇 가지 질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만약 퍼블릭 마켓에서 음식을 구입하거나 기념품 등을 구입한다면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다. ▶ Curling : 컬링을 배운 후 직접 컬링경기를 체험합니다. 장갑 필요하고, 목티 입는 것이 좋습니다. ▶ Museum of Vancouver : 박물관 구경 및 과제 작성 ▶ Vancouver Aquarium : 아쿠아리움 구경 및 과제 작성, 펭귄이나 바다사자를 볼 수 있다. ▶ Capilano Suspension Bridge : 만약 비가 온다면 우산을 캐필라노에서 우비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우비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 벤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릴 만큼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좋으며 첫 주 며칠이외에는 날씨가 한국보다 따뜻했습니다. 목티나 레이어드 등 꺼입을 수 있는 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 친구들과 같이 다니고 저녁 늦게만 다니지 않는다면 위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캐나다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노숙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은 저녁이 되면 mental illness들이나 홈리스들이 많기 때문에 밝을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 한국에서 미리 이메일을 보내서 규칙이나 자신이 사용할 물품, 가져가야 할 물품 등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세탁이나 샤워에 대해서 제한이 많은 홈스테이가 많은데 제가 머물렀던 홈스테이는 한국과 규칙이 비슷했고 세탁이나 샤워시간, 저녁시간 등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설거지 등 직접 뒷정리를 해야 했고, 점심은 집에 있는 재료로 도시락을 싸면 됐으며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는다면 미리 연락을 하면 됐습니다. 홈스테이 호스트 분들께서 항상 인사도 반갑게 해주시고 뭐든 다 챙겨주시려고 하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요청하면 대부분 다 들어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방이 좀 춥다면 남는 이불을 달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돼지코를 미리 준비해서 가면 좋고, 보통 내부에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슬리퍼를 준비해서 가면 좋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 아침은 홈스테이에서 해주시는 밥을 먹었는데 주로 계란이나 스팸, 베이컨, 식빵 등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저녁에 남은 음식을 싸가거나 샌드위치를 주로 싸갔는데 저는 저녁에 먹었던 음식보다는 아침에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저녁에는 주로 학교를 끝낸 후 놀러를 갔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자주 먹었고 캐나다에도 홍대포차나 dae ji 등 한인식당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생각어난다면 한인식당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잼카페나 사무라이 스시, The Keg Steakhouse 식당 가보는 것 추천합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 교통은 편리합니다. 스카이트레인, 버스, 시버스 등이 있는데 저는 주로 스카이트레인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누어준 Compass 카드로 지내는 동안 무료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설명해

	주겠지만 캐나다에서 버스는 모두 zone1이고, 스카이 트레인은 zone1,2,3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zone1은 무료이고 다른 zone은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데, 6시 30분 이후부터는 모든 zone에 대해서 추가요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글 맵을 사용하면 버스 시간표나 스카이 트레인 시간표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1,935,650	
식비	500,000	저녁 및 간식
쇼핑, 관광, 기념품	900,000	
합계	3,335,65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 홈스테이 분들과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제공해주는 것(세면도구, 수건, 세제 등)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물을 사먹으면 생각보다 비싸서 텀블러를 챙겨가서 식수대에서 받아먹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에서 라면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점심 때 먹거나 한국 음식 생각날 때 먹으면 좋습니다. ▶ 식당에서 결제 할 때 음식 가격에서 15% 정도 팁으로 주면 좋습니다. 또한, 항상 캐나다 물건은 택스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택스 12%를 염두에 두고 물건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먹고 난 후 동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 출국 전에 유심을 구매하고 가면 좋습니다. 저는 유심스토어에서 11기가, 현지 통화와 문자 무료로 해서 21일용을 사용했는데 홈스테이 집과 학교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정말 충분하게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포켓와이파이나 로밍보다 유심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 목티나 레이어드 같이 안에 끼입을 수 있는 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캐리어에 자리가 많다면 부츠도 챙겨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기념품 사고 쇼핑하면 짐 가방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서 캐리어 두 개랑 기내용 가방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솔직히 단기 어학연수이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항상 영어로만 대화를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고 적응을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할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다녀오고 보니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험이 너무 저에게는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영어로 대화할 때 완벽한 문장으로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고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어가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의 문법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달리 영어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과의 대화를 하고, 물건을 살 때도 홈스테이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질문이 있을 때도, 수업시간에도 모두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기에 좀 더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사용하다보니 좀 더 쉽게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뛰어난 영어 실력 성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영어 사용을 자신감 있게 편하게 사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 3주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에 와서 놀고, 먹고 구경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실천해 보는 것 또한 너무 즐거웠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항상 보행자 우선이고 차가 먼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면 먼저 멈춰서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점은 배웠으면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배우고 싶은 점입니다.

▶ 밴쿠버에서 배웠던 문을 잡아준다든지 버스기사님께 감사인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실천해볼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밴쿠버를 다시 방문하고 싶고, 앞으로 이 경험을 앞세워서 영어 스피킹을 좀 더 가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캐나다 플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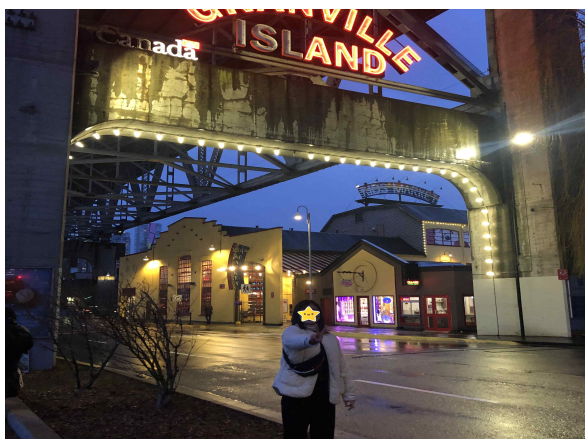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스탠리 파크 자전거



빅토리아 아일랜드 국회의사당



그랜빌 아일랜드



개스타운 증기시계